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8>



“대박을 터뜨리세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나란다성의 한 숲속에 계시실 때의 일입니다. 그 성에 '견고'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처님을 매우 존경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승단을 좋아하는 만큼 청년의 소망은 오직 하나, 불교의 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메아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부처님이 맨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다니며 가르침을 펼치는 식의 교화법은 얼른 집어치워야 했습니다. 그러가지고 어느 세월이 인도땅, 나란다성을 불교의 요람으로 만들 것인가... 청년은 자나깨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불교의 불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아주 그럴 듯한 묘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청년은 부처님을 불러 가서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앞으로 승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사람들을 만나면 기적을 보여주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은 청년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나 막힘없이 드나들 수 있는神通력, 상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환히 알아맞히는神通력, 그리고 다른 이를 깨달음의 경지로 교화하는神通력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잘못 부러 오하려 부처님에게 크게 야단을 맞은 스님 이야기도 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기적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함부로 부러서는 안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아무리 부드럽고 쉬운 말로 타이르고 깨우쳐주어도 그 마음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마지막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청년에게 기적을 부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수행한 비구들이야 바른 생각으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겠지만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들이 그런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기적 속에 숨은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나도 그런 것 할 줄 안다, 주문만 몇 줄 외면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말로 참으로 바른 법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장야함 견고경>

아마 부처님이 인도땅에서 대대적으로 교세

교세확장에 '기적' 이용하자는 제안 끝내 거절 '공덕은 스스로 감추고 잘못은 드러내라' 당부

나.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고 비구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여래의 제자들은 오직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고요히 도를 행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숨기며,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의 거절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청년은 그래도 놀라했습니다.

“부처님, 그러지 마시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려고 스님들에게 명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좋고 훌륭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란다성은 인구도 매우 많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조금만 기적을 보이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부처님과 승단은 아주 훌륭하게 교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스님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일러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한가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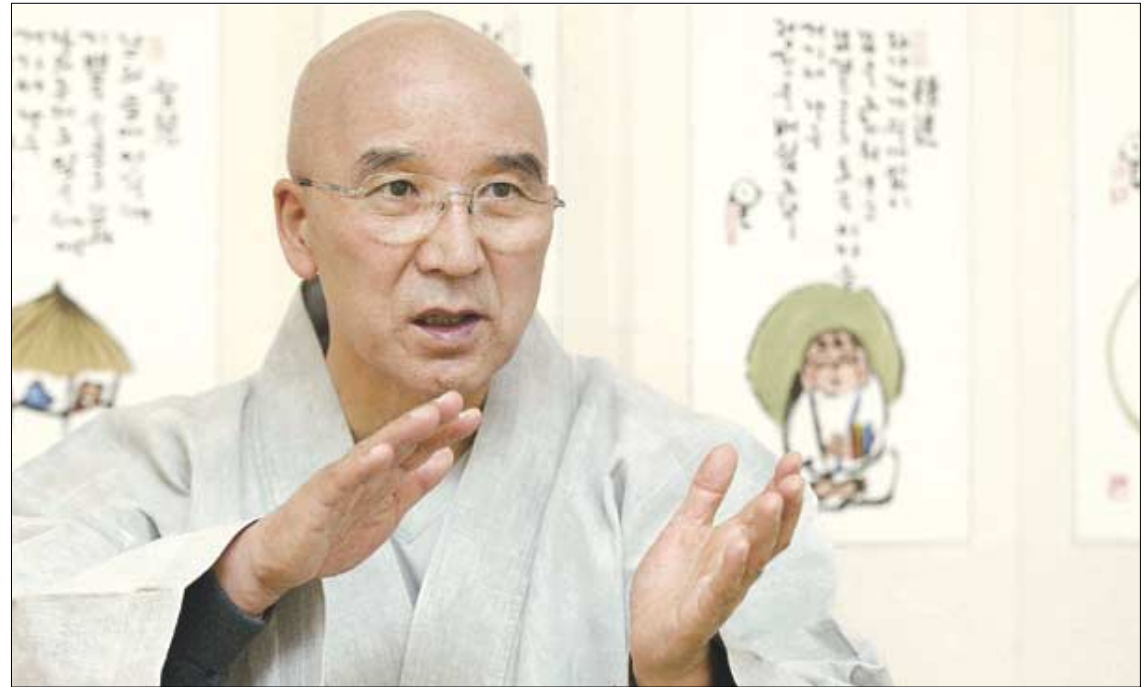
“기적은 안 된다”는 것... 물론 경전을 읽다보면 부처님도 세 가지 기적(神通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

확장에 성공할 생각이었다면 분명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불가사의한 힘 앞에서는 기가 막히고 납작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단 신도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나서 말해 소위 '대박'을 터뜨린 뒤에 뭔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펼쳐자는 심리가 종교인들 사이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난 뒤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인지...

거역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 정상적인 삶마저도 포기하는 말로써 겪게 되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기적'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부락하는 사람 앞에 부처님은 '공덕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감추고,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한 건 제대로 하여 인생을 180도 역전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요즘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어떤지 시대를 거스르는 당부인 듯 느껴집니다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미정(중국역경원 객원위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철 스님은 '기도' '자비행' 등으로 불지러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양의 멋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진철 스님

(대전 만불선원 회장)

가을비가 인가처럼 산자락에 내려왔을 10월 28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회주 진철 스님을 뵈었다. 고즈넉한 암자를 생각하고 찾아간 만불선원은 기대와 달리 총남도청 옆,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단아한 3층 건물은 산사에서만 생활해 오셨던 스님의 도심포교 원력처럼 보였다.

스님에게 '만불선원(萬佛禪院)'의 뜻을 물었다. 스님은 '만불'이 모든 부처를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며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포교하겠다는 발원과 설명했다. 다음은 진철 스님이 들려준 '불자로서는 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사회 정화를 위해 불교가 꼭 필요함이다. 정치 경제 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육망 때문인데 이 육망의 성취를 위해서 사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망에 물든 사회를 깨끗하게 할 의무가 불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나 재가신도나 다를 바 없이 되어지고 가야 할 의무입니다.

예전에 어떤 불자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것

은 바로 부처님 말씀에서 사회성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제 28에 성취사법(成就四法)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법은 여래 입멸 후에 <법화경>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 네 가지 법 즉 보살 덕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부처님께서 안 계신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도 <법화경>의 구제정신을 터득해 모든 사람에게 <법화경> 성불사상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법의 첫째는 제발호념(諸佛護念)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마음에 받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글만 아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은 무엇일까요. 모든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은 바로 일체중생입니다. 그것을 받들어 모시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성입니다.

부처님이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다른 사람의 인연·인격을 침해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둘째는 식중덕본(維衆德本)인데 덕의 근본은 중생에게 심으라는 뜻입니다. 불교의 이치와 근본은 수행의 힘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왜 합니까. 수행해서 얻은 모든 것을 중생에게 심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곧 포교 전도하라는 말이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의 말씀을 널리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선언인데 성취사법의 두 번째도 바로 이것에 다름 아닙니다. 포교 전도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는 입정정취(入正定聚)입니다. 성불이 결정된 사람들의 모임인 정정취에 들라는 말이지요. 성불이 결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아는 이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른 법을 세워서 사되게 가지 말고 향기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성취사법의 제발호념과 식중덕본을 하기 위해서는 정법을 가져야 합니다. 사되게 빠지지 말고 정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발구중생지심(發求衆生之心)은 사후서원과

#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 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중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 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된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 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탑**

사진·하지권

크기 | 30.5cm × 30.5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 3,500원

**2006 CALENDAR**  
 불기 2550년 | 단기 4339년 | 丙戌年

부수	100-500부	501-1000부	1000부이상
달	1,800원	1,700원	1,600원
색	1,600원	1,500원	1,400원

주문대상·개인, 각 사찰 또는 단체  
 주문처·불광문화사업부  
 대표전화·(02)420-3230  
 팩시전화·(02)420-3400  
 대형 주문은 대량과 같은물인해매달 함께 달에 하단에 사할 일단체의 홍보문구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색**

사진·이경

크기 | 30.5cm × 22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 3,000원

월간 불광 · 불광문화사업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 http://www.bulkwang.or.kr · E-mail webmaster@bulkwang.or.kr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생의 마음을 구원 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라는 뜻이지요.

이 네 가지를 성취하면 <법화경>과 같이 할 수 있고 도인이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맞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구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전 행간에 숨은 의미는 글자풀이만 한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풀이식 경전 해석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기록이나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내 생활과 다른 얘기들이 되풀이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할까요. 불자들은 매일 매일 독경하고 암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내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이 내 생활과 아무 연관 없다고 느끼게 되면 천근같은 사라지고 내가 불자라는 사명감이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경전을 독경하고 암송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지만 불자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 합니다. 경전만 외운다고 내 생활이 불자다워지는

에서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 일 것입니다.

이제 불자 여러분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 사회문제에 직접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불교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를 알든 모르든 불교유치원만 다녀도 불교에 익숙해지고 친불교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불자들은 자녀들에게 불교를 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자가정에서도 젊은 불자가 나오지 않고 사찰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만불선원이 문을 연지 4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청년회도 중·고등학교도 대불련도 아무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찰이 200개가 넘게 있으면 뭐합니까. 젊은 불자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불자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철 스님은 불자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외적 조건만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 욕망에 물든 사회 정화하는 것은 불자 의무

### 사회문제 외면 말고 기도·자비행 생활화를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 해 가고 있습니까? 암송하는 경전의 내용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독경하고 뒤돌아서서 이웃과 싸우거나 가족들에게 분심(忿心)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같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독경과 독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경전을 외을 시간에 내가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는지 찾아보고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내 생활을 불교적으로 이끌었다면 이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욕망에 물든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이 대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란 곧 보시요, 희생은 곧 보살입니다. 요즘은 많은 불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유구와 쾌락을 충족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살면 지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사회참여는 기본입니다. 이 기본권을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너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불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불자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을 불교계

어떻게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은 아침예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야 합니다. 교리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까. 그러나 머리뿐만 아는, 지식으로의 불교는 살아있는 불교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아침 예불을 통해, 꾸준히 반복되는 일상 속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아야 합니다. 신행생활을 하고 아침기도 사시불공 등 자신의 일정에 맞게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요즘은 집에서도라도 기도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법하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불자로서 신념을 느끼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신념과 사명감은 교리공부만 해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 속 신행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 신념과 사명감이 몸에 밴 불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생겨난 자신감은 불자로 살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고유가, 고금리 등 다양한 생활고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행복러들이 깨닫는 뜻입니다.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정신 속에 있습니다. 민족의 기준을 물질 마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복지수는 또 틀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렇다기보다 주위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사회적 여건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잡곳 세워서 불행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외적 상황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현재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해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외형적으로만 살아 버릇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 하신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불선원의 슬로건은 '모양이 멋보다 마음을 아름답게'입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내면의 멋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경 스님 (上)

적주 림스님의 법상좌인 법경 스님은 나의 도반이자 대학원 동문이다. 그러나 가까운 수도권에 살면서 자주 만남 기회는 없었다. 내가 법경 스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것은, 90년대 초다. 스님은 방생이 한강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불교계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빚날 때 "방생의 근본이 생명존중이라면 불교가 적응을 못해 죽는다는데 굳이 관습의 틀에 잡혀 비판받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물고기 방생을 그만두고 성지순례와 인간방생으로 방향을 바꿨다. 당시 포교당 주지로서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예전 그대로의 방생을 하고 있는데 10여년전에 벌써 그러한 결단을 한 스님



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법경 스님은 서울 광진구에서 포교원 등 인정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동 영역은 성동구다. 따라서 양구(兩區)를 다니면서 쪽넓은 포교를 하고 있다. 사중 살림이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독거 노인, 불우 이웃, 청소년 장학금, 군부대 포교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돕기 나선다. 스님의 이러한 활동은 주님과 기관장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종교인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서울특별시 민간' 추천을 주님과 단체장들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 문화원'의 이사로도 모셨다.

이러니 오죽 바쁘겠는가. "건강증 쟁겨라"고 하면, "과거의 법경이는 죽었고, 부처님의 가르침 새 법경이 태어났다"고 말곤곤 한다.

법경 스님은 기관지가 안 좋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의사가 늦었다며 수술을 한다 해도 가망이 50%밖에 장담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1년 정도만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단양 원통암을 찾아가 있다. 차라리 삶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관음 100일기도를 하였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지 회향 3일전인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노스님이 나타나 잠삼자락을 틀추더니 빨간 약주머니를 꺼내 주어서 받았다고 한다.

100일 기도를 회향한 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식욕이 생겼고, 한 달이 지나자 그렇게도 숨차하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개월이 되자 정상적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병원에 검진을 갔는데, 의사가 완치가 되었다고 깜짝 놀라며 현대의학으로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법경 스님은, 약사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불은(佛恩)에 보답하겠다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평생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원을 세웠다. 또 부처님가피로 죽을 병을 극복하고 나니, 이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 나갈 자신감도 생겼다. 생사(生死)라는 큰 고비를 극복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남을 돕겠다는 자비심으로 자신을 신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간 것이다.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불행을 겪는 것은 가슴

### 불치병 기도로 극복한 후

### 평생 봉사 원 세우고 혼신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보다 가치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기회도 되는 것 같다. 어느 선지식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고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고뇌할 필요가 없고, 방법이 없다면 고뇌하는 것은 무의하다."

언젠가 법경 스님은 서울의 모기관 고급 공무원의 타계로 인해, 도반과 함께 영결식장에 갔다. 영결식장에서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고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같았다. 그런데 불교의식도 함께 했고 스님의 법문에 이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데 참석자들 사이에서 열불소리가 들려 영결식을 마친후 그 보살들과 차담을 나눴다. 이야기들 들어보니 고인의 집안은 독실한 불교였고, 미망인도 그 보살들과 함께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열불토크로 함께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부인은 몇 개월 전만 해도 다니던 사찰에서 2천여 신도를 리드하던 간부급 신도였다고 한다.

스님은, 그 부인의 병을 고쳐보려면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종교까지 버렸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을 빌리면, 마지막 떠나는 길에 종교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법경 스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제 법당에서 불자 오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현대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직종에 맞게 그들의 고뇌와 번민을 덜어주며 마음의 평화를 건네 줄 수 있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 남양주 우형사 주지

진철 스님은 불교의 사회화와 그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제도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승려 교육이 제대로 되어 불교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관사관 제도를 삼관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일관, 포교 교육 전담의 이관, 행정 중심의 삼관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삼관은 출·재가를 모두 포함해 불교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스님은 불교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

1940년 태어난 진철 스님은 65년 1월 공주 마곡사에서 득도 수계했다. 이후 해인사에서 자운 출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통도사에서 월하대

종사를 법사로 견당했다.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상원사 법주사 은혜사 수덕사 등 제방선원서 단거를 성만했다. 또한 강릉사 비원·통도사사비원·대원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 이사장,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신라문화원 이사장이자 대전 만불선원(주지 선의)의 회주로 있다.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립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립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썩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점은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때야 한다."

특대 증류

ISO 9001:2000

오양썩뜸기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썩뜸을 할 수 있다.
- 북부의 5개 월지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치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안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월지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썩뜸을 할 수 있다.

음양썩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썩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치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안전 배출.

의료용구로 허기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의료용구 제조등록허가 : 제 03992호  
의료용구 제조등록허가 : 제 119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식품안전등록 : 제 0306642호  
식품안전등록 : 제 0318670호  
식품안전등록 : 제 0329090호  
의약품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약품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오양썩뜸기, 음양 썩뜸기, 오양좌측기 등을 평점 및 사후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특정 공급할 수 없습니다.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www.moxa4u.com 오양썩뜸, 좌측기/음양썩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선농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비이오 관리보육센터